

# '백파더 확장판', '꿀잼수다' → 1분 리뷰이 특급레시피 공개

비하인드영상 재편집해 또다른 재미 선사하는 프로그램

생방송 전 재료 구입 위해 마트 나들이... '관전포인트'

'백파더 확장판'이 생방송과는 차별화된 웃음으로 안방을 사로잡았다. 지난 27일 오후 11시 5분 MBC 예능 프로그램 '백파더 확장판'이 방송됐다. '백파더 확장판'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생방송되는 '백파더 : 요리를 멈추지 마!'의 비하인드 영상을 재편집해 또다른 재미를 선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날 '확장판'에선 라면 편 생방송 비하인드 영상이 공개됐다. 생방송을 앞두고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마트 나들이에 나선 백종원과 양세형의 호흡은 놓칠 수 없는 관전포인트.

백종원은 자신이 광고모델로 나선 상품을 발견하자 "잘 팔려요?"라고 묻는가 하면 "뭘 사러 왔는데 내 얼굴이 날 쳐다볼 때가 가장 오글거리고 민망하다"고 수줍어했다. 이어 정육코너 앞에 멈춘 양세형은 "이 프로가 겨울까지 간다면 '요린이'들에게 연말을 위한 고기 요리법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냈다. 백종원은 "고기를 잘 구워 먹지 못하는 사람 많다"며 "그 관계 대고 우리 밖에서 구워 먹는 거지"라고 속삭였다. 이어 양세형은 "오로지 '요린이'들을 위해서"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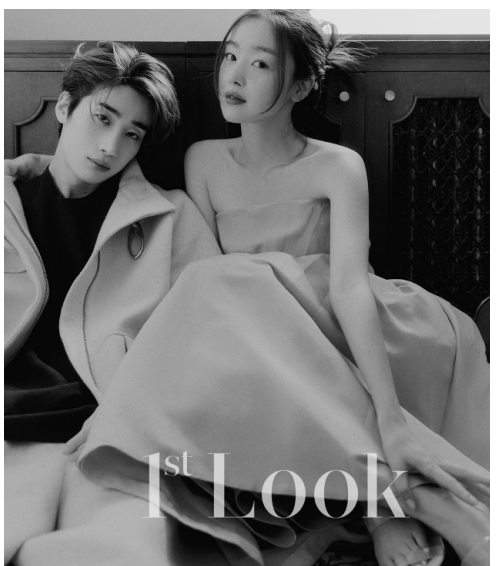
큰소리로 외치며 "우리 나중에 밖에 나가서 돼지고기도 굽고 소고기도 구울까?"라고 능청스러운 연기를 펼쳤다. '신스틸러'들의 활약도 빛났다. 대희 개발하고 놀라운 식재료 의상으로 재미를 안겨주는 타이머 밴드 노라조 조빈과 원희는 대기실에서도 장난꾸러기 같은 매력을 분출하는 한편, 틈틈이 가사를 외우는데 집중하며 프로의 면모를 발산하기도. 이날 '백파더 확장판'은 생방송 '백파더'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비하인드와 백종원과 양세형의 케미스트리, 스토리텔링을 더한 재미 넘치는 편집으로 재미를 선사했다. 이외에도 초간단 1분 리뷰이 특급레시피 등 요리법 역시 자세하게 공개하며 유익함과 재미를 안겼다. 한편 '백파더 : 요리를 멈추지 마!'는 전국민, 전 연령이 함께 할 수 있는 '요린이'(요리 초보들을 일컫는 말) 경쟁 프로젝트



로 90분 동안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는 쌍방향 소통 요리쇼. 매주 요린이들을 위한 초 간단 재료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요리 도구로 그들을 '요리'의 세계로 안내한다.

## 한선화 · 한승우, 데뷔 후 첫 '찐남매' 화보... '우월한 유전자'

현실 남매답게 어색했다가도 살뜰히 챙기는 모습 보여



시크릿 출신 배우 한선화와 빅톤 한승우의 남매 화보가 공개됐다. 실제 가요계 친남매인 두 사람은 이번엔

첫 합작 화보를 통해 우월한 유전자를 뽐냈다. 매거진 '피스트룩'을 통해 공개된 사진속 한남매는 서로 팔로 감싼 채 장난기 넘치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남매인 듯, 친구인 듯, 연인인 듯 다정한 모습을 선보였다. 화보 촬영장에서 만난 한선화와 한승우는 현실 남매답게 어색하기도 했다. 서로에 대한 애정 어린 모습을 보여줬다고. 화보 촬영 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집에서 볼 때와 일터에서 동료로 볼 때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한선화는 "무대에 선 승우를 보면 내가 알던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잘 하더라고요.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웬지 모를 애뜻함이나 찐함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한승우 역시 "제가 보는 집에서의 누나와 연예인 한선화의 모습은 다른 점이 있어요. 일할 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프로페셔널하기도 하고, 집에서는 엄마와 소통도 제일 많이 하고, 가족들을 늘 재미있게 해주거든요. 그런 누나의 모습이 좋아요"라고 답했다. 서로 조언을 구하거나 고민을 토로한 적 있는지 묻자 한선화는 "저희가 진짜 현실 남매다 보니까 자주 연락해서 뭔가를 묻거나 그러진 않지만 가끔 '별일 없냐', '요즘 어때?'라고 물어보면 동생이 의젓한 편이라 그런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분명 힘든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주려고 해요"라고 말했다. 한승우 또한 "누나도 잘 했었으니 저도 힘든 게 있어도 잘 견뎌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느 집이든 남동생은 누나가 걱정할까 봐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라며 애정을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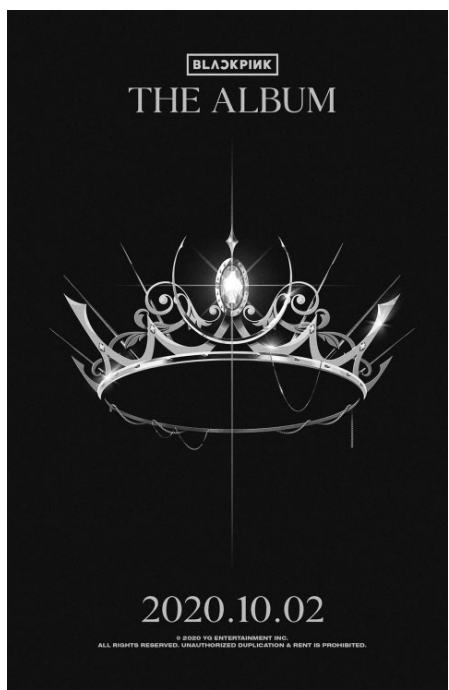
## '모범형사', '그놈이 그놈이다' 제치고 1위

JTBC 월화드라마 '모범형사'가 월화드라마 1위 자리를 지켰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7일 오후 9시30분에 방송된 '모범형사 제7회'가 유료가입가구기준으로 전국 시청률 4.8%를 기록했다. 이는 21일 방송된 6회 시청률 4.4%에서 0.4%포인트 오른 수치다. '모범형사'는 이날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지상파 종편 월화드라마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동 시간대 방송된 지상파 KBS 2TV 월화드라마 '그놈이 그놈이다' 7회 1부는 시청률 2.1%, 2부는 3.1%에 그쳤다. 이날 방송에서는 강도창(손현주)과 오지혁(장승조)의 노력에도 재심을 포기했던 이대철(조재운)은 강도창의 설득에 재심을 결심했다. 강도창은 이은혜(이하은)가 아빠를 살려달라 간청했다는 사실을 이대철에게 전하며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라고 설득했다. 그의 진심을 읽은 이대철은 은혜가 결혼하게 되면, 나 대신 손 좀 잡아달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왔다. 사형을 앞두고도 딸의 안위와 마래만을 걱정하는 부성에 강도창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재심에서, 5년 전 사건을 둘러싼 수상한 연결고리가 꼬리를 물면서 의문을 증폭시켰다. 5년 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오종태는 유정석(지승현), 유정렬(조승연) 형제란 킷을 쥐고 있었다. 오종태는 유정렬이 국회의원인 되는 것을

도왔고, 이에 국내 굴지의 금융사도 포기한 사업을 인천제일신탁이 따낼 수 있었다. 오종태는 또한 법무부장관 후보 검증 청문회에 출석해 정당치 못한 방법이 드러나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 유정렬의 청렴함을 증언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 언제든 이익을 포기하고 이들을 코너로 몰 수 있다는 압박이었다. 1차 공판 후 유정석은 진서경(이엘리아)을 이용해 오종태에게 불리한 기사를 터트리려, "지켜야 할 선 넘지 말라"며 오종태를 압박했다. 강도창과 오지혁은 새 단서를 확보했다. 사건 당일 현장 근처에서 오종태가 불법 유턴으로 딱지를 끊었다. 오지혁은 그가 현장 쪽으로 유턴했던 이유에 대해 "뭔가 중요한 걸 현장에 떨어트린 것"이라며, 그건 자신이 경매에서 낙찰받은 시계라고 추측했다. 두 사람은 그 시계를 경매에 올린 정유선(안시하)을 찾아가, 살인 사건 용의자가 찾던 시계라며 사실을 말해달라고 설득했다. 말문을 열 것 같지 않았던 정유선이 결국 현장에서 시계를 입수한 사람은 장진수 형사가 아닌 남국현 팀장이란 사실을 털어 놓았다. 심지어 그가 오지혁과도 모종의 관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강도창의 설득에 재심에 매우 유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언을 약속한 정유선을 감시하던 남국현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표정은 극의 긴장감을 높였다.

## 블랙핑크, 첫 정규앨범 10월 발매...YG "글로벌 시장 공략"

내달 발매 두 번째 신곡...특별한 협업 예고



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그룹 '블랙핑크'가 데뷔 4년 만에 첫 정규앨범 발매

날짜를 확정했다. 28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오는 10월 2일 첫 정규 앨범을 공개한다. 이날 점심 바탕에 반짝이는 핑크색 왕관이 시선을 사로잡는 첫 정규 앨범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블랙핑크는 지난 6월 발매한 정규 1집 선공개 타이틀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으로 돌풍을 일으키며 이번 앨범의 성공적 시작을 알렸다. 8월 중 발표될 두 번째 신곡에 이어 첫 정규앨범 발매일까지 '열 일 행복'들이 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소 소속 가수들의 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유명한 YG가 두 달 뒤 일정까지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YG 관계자는 "2020년 블랙핑크는 체계적이고 철저한 계획과 실천으로 글로벌 시장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블랙핑크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세계 최대 음악 그룹인 유니버설뮤

직과 함께 진행 중인 글로벌 프로젝트가 차근차근 잘 이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블랙핑크는 '하우 유 라이크 댓'을 통해 명실상부 글로벌 그룹으로 도약했다.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50차트에서 2위, 세계 양대 팝 차트로 불리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와 미국 빌보드 핫100에서 각각 20위와 33위로 첫 진입하며 K팝 걸그룹 역사를 새로 썼다. 뮤직비디오는 첫날 8630만 뷰를 기록하며 '공개 24시간 내 유튜브 동영상 최다 조회수' 등 기네스 월드 레코드 총 5개 부문에 공식 등재됐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까지 약 한 달 사이 500만여 명이 증가, 아리아나 그란데를 넘어 이 분야 세계 여성 아티스트 1위에 등극했다. 한편 내달 발매되는 블랙핑크의 두 번째 신곡에는 특별한 협업이 예고됐다.

## 이학주 "김희애가 칭찬한 기사, 주변에 여러 번 공유"

"너무 감사해...살면서 몇 번 있을지 모르는 일"

배우 이학주가 '씨네타운'에서 김희애에게 연기 칭찬을 받은 소감을 전했다. 이학주는 28일 SBS 라디오 파워FM '장예원의 씨네타운'에 출연, 김희애가 해준 연기 칭찬을 듣고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김희애는 한 인터뷰에서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동반 출연한 이학주에게 "현장에서 후배를 보며 자극받을 때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학주를 보며 깜짝 놀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학주는 이에 대해 "너무 감사했다"며 "연기 칭찬 기사를 주변에 여러 번 공유했다. 살면서 몇 번 있을지 모르는 일이라 부끄러운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의 세계'에서 악역 연기를 위해 직접 스타일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패션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캐릭터에 몰입하기 위해 스타일링에 도전했다"고 설명했다. 이학주는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내달 개봉하는 영화 '어서오시게스트하우스'는 '서핑에 대한 영화'라고 말했고 9월에 방송하는 JTBC 드라마 '사생활'에서는 정의로운 열혈 형사 캐릭터를 맡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학주는 2012년 영화 '밤샘이'로 데뷔해 드라마 '오나의 귀신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저스티스', '헬로가 체질' 등에 출연했다. '부부의 세계'에서 악역 '박인규' 역할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 방탄소년단 전문 잡지, 이탈리아서 창간



이탈리아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잡지가 창간됐다. 28일 이탈리아의 잡지 발행사인 스프레아(Sprea) 페이스북 등에 따르면 이 회사

는 지난달 'BTS'라는 제목의 잡지를 선보였다. 방탄소년단의 사진, 각종 소식 등이 실렸다. 스프레아는 "한국의 보이 밴드, 그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지 함께 알아본다"라고 소개했다. 스프레아는 일정 기간을 두고 BTS를 발행해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 K팝 가수 한 팀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잡지가 탄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방탄소년단이 이탈리아에서 제대로 활동한 적은 없으나, 현지에는 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프라노 이올리나는 작년 뉴스시와 인터뷰에서 "이탈리아에서도 방탄소년단 인기가 많다. K팝 때문에 한국 이미지가 정말 좋아졌다"고 말하기도 했다.